

2017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후원자님. 올 한 해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온라인 발급으로 진행되어 온라인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기부금 영수증 우편 비용을 절감하여 더 많은 후원 사업을 전개하고자 온라인에서 출력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출력 방법

- ①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부금
- ②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 www.ksm.or.kr
- 회원 로그인) 나의 후원정보) 기부금영수증 조회 (로그인 후 이용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 2017년 기부금 영수증 내역은 2018년 1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2,000만원 초과분은 30%)
- 기부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합산기준 : 2017년 1월 ~ 12월까지 기부금

주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님의 명의로 발급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으로 입금내용(후원자명, 은행명, 입금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립니다.

문의전화 02-734-7070



(0417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Tel. 02-734-7070 | Fax. 02-734-8770 | ksmseoul@ksm.or.kr | www.ksm.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서 특별협의지위 NGO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입니다

2017
송년호 Vol.92

www.ksm.or.kr
www.facebook.com/ksmseoul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Special Them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모금 캠페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모금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린이평화축구 9기

아이들의 평화 감수성이 받은 웃음만큼 자랍니다.





목차 Contents

- 03 **비전 전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비전
- 04 **권두언** 2017년 한 해를 보내며
- 06 **특 집** 후원 캠페인 진행보고
- 09 **전문가 기고** 남북의 마음은 통할 수 있을까?
- 12 **사업보고1** 평화나눔 정책포럼
- 13 **사업보고2** 정책 토론회
- 14 **사업보고3** 어린이 평화축구 9기 수업
- 15 **사업보고4** 밀산시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
- 16 **사업보고5** 사서교사의 작은 보람
- 18 **사업보고6** 도서관 사서 연수
- 19 **사업보고7** 평화로 2017
- 20 **우리함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 22 **사업일지** 2017년 9월~12월 주요 활동
- 23 **단신소식** 강영식 사무총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등
- 24 **후원자 명단**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발행인 영담, 윤여두, 이일영, 최완규 편집인 강영식 발행일 2017년 12월 주소 (0417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전화 02)734-7070 팩스 02)734-8770 메일 ksmseoul@ksm.or.kr 홈페이지 www.ksm.or.kr 디자인 및 인쇄 마디커뮤니케이션(02-488-3002)

고문 김성훈, 박경조 상임공동대표 영담, 윤여두, 이일영, 최완규 공동대표 김정우, 김문찬, 김병준, 김영록, 김영숙, 김철수, 김현수, 무일, 박남수, 박완수, 박준영, 손진우, 우희중, 원혜영, 이수구, 이용선, 이재술, 전정희, 정의화, 천정배, 최호득, 추무진, 황언구 감사 김영환, 전성 사무총장 강영식 홍보편집위원장 김효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비전 2030

비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롭고 건강한 한반도평화공동체

사명

우리는 서로돕기운동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을 위해 일한다.

핵심목표와 10대 실천과제

01

민족 공동 발전과 남북 간 격차해소를 위한 교류·협력의 확대

- ① 농축산, 보건 의료, 생태환경, 지식공유 분야 등에서 지속가능하며 상호이익이 되는 방식의 남북협력사업 선도
- ② 인도적 필요가 있는 지역과 대상에 대한 서로돕기운동의 확대
- ③ 남북 교류 협력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평양사무소 설치와 관계망 구축
- ④ 비전의 공유와 평화협력을 위한 재외동포 사회와의 관계 증진

02

한반도 갈등해결과 우리사회 평화문화 확산

- ⑤ 남북협력, 한반도 평화,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
- ⑥ 스포츠와 문화를 매개로 하는 참여적 방식의 평화교육 실행
- ⑦ 평화로운 남북통합의 길을 열어가는 사회문화교류 추진

03

국내외 연대강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조성

- ⑧ 시민참여와 소통의 확장을 통한 개방적인 조직 운영
- ⑨ 안정적인 모금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한 재정구조 실현
- ⑩ 평화와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국내 및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2017년 한 해를 보내며...

강영식 사무총장_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참으로 격동의 2017년이 지나갑니다. 20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빨강게 표시된 12월 마지막 달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러저러한 감회에 젖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의 시작이 5월의 푸르름과 함께 한 것이어서 기대도 많았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조만간 경색 국면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6월 초, 5년 만에 진행되는 대표단 방북을 확정해 놓고 떠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북이 결국 무산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이르렀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교류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먹구름이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으레 하기 마련인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자’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인사가 웬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7년 한 해도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6월 창립 21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약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새롭게 정립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롭고 건강한 한반도평화공동체”라는 새 비전은 지금의 위기 국면을 오히려 평화의 기회로 전환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 8월에는 올해로 9회째인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개최했으며 4개월에 걸친 후원 캠페인을 통해 월 500만원 가량의 후원금 증액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18번째의 중국 조선족학교 네모상자 도서관이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사무처 내부에서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마련한 ‘핵심목표’와 ‘실천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중장기적인 남북 개발협력사업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제83차 공동대표회의



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18-2022 남북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통해 계획안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5차례 진행된 이 전략회의를 통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 공동의 발전과 북쪽 주민들의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을 돌파하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후원자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로이 다가오는 2018년에는 그저 기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상황이 어지러울수록 새삼 평화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70년대 초 서독 총리를 지냈던 빌리 브란트의 말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평화의 인사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Peace is not everything,
but without peace everything is nothing.)

-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5월~9월 후원 캠페인 진행

- 총 157명 참여, 매월 503만5천원 증액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20년 만에 드린 후원 요청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롭고 건강한 한반도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건강한 손짓이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갈수록 중요해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원이 담겨 있는 까닭이다.

손종도 부장 기획홍보팀

201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후원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1996년 창립 이후 ‘20년 만에 드리는 편지’라는 형식에 ‘20년의 기록’을 담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대한 후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후원을 요청 드리는 글의 형식과 내용에 담겨 있듯이 이번 후원 캠페인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강영식 사무총장의 지난 20년을 내걸고 진행된 셈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첫 번째 편지를 발송한 날은 5월 24일입니다. 이날에 바로 후원 약정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이 27명에 이르렀는데, 이후 9월까지 4차례의 편지 글을 더 보내드린 결과 모두 157명이 이번 후원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후원을 약속하신 분들이 123명이고, 증액을 해 주신 분들도 34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모두 157명의 후원자 분들이 약정한 금액은 5,035,000원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후원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당초 목표로 세웠던 금액은 월 1,000만원이었습니다. 21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수립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그에 걸 맞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월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월 500만원 증액

을 이루었으니 목표치의 50%를 넘긴 셈입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결과 목표의 절반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실망하셨나요? 오히려 저희들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시작한 후원 캠페인은 사실 오랜 기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20주년을 맞은 201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우선 창립 이후 20년간의 역사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어서, 백서는 부록을 포함해 580쪽에 이릅니다. 이 백서를 바탕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향후 20년간 우리 활동의 바탕이 될 비전과 미션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약 10차례에 이르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어떠한 일과 역할을 해야 하는 지, 깊이 있는 고민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비전위원회를 구성해 내외부 이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무처에서 정리한 내용과 통합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전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6월 21일 열린 21주년 기념식

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롭고 건강한 한반도평화공동체” 이것이 바로 향후 20년 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향하는 비전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존재와 역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비전의 정립에 더해 그 과정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10여 차례의 사무처 워크숍 과정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구성원들은 우리, 더 나아가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으며 이는 곧 우리의 모습에 대한 평가와 반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그의 미를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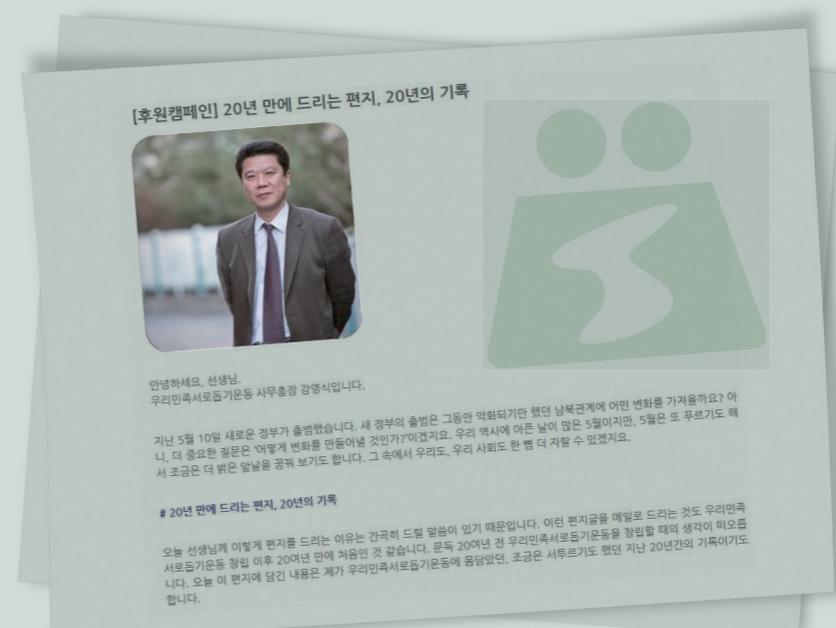
한편 이번 후원 캠페인과 관련, 당초 지지들의 생각과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올해 후원 캠페인 기간을 5월로 잡은 것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

과 함께 남북관계가 변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월 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쪽 접촉 신청에 대해 우리 통일부가 수리를 하고 북쪽에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방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6월 10일 첫 방북이 거의 확정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결국 기대에만 그치게 됐습니다. 북쪽은 6월 초 우리 대표단의 방북을 연기하자고 전해 온 후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 대로입니다.

더욱 중요해진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도리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남북간 화해와 한반도 평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새롭게 정립한 비전과 미션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이 일에 더욱 더 힘써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도 더욱 짜임새 있는 내용과 다양한 방식으로 남북간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후원캠페인] 20년 만에 드리는 편지, 20년의 기록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강영식입니다.

지난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은 그동안 약화되던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아 니,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이겠지요. 우리 역사에 아른 낚은 5월이지만, 5월은 또 푸르기도 해 서 조금은 더 밝은 앞날을 꿈꿔 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우리 사회도 한 뼘 더 자랄 수 있었지요.

20년 만에 드리는 편지, 20년의 기록

오늘 선생님께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건국에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지글을 매일 드리는 것도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창립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독 20여년 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창립할 때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은 제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몸담았던, 조금은 서투르기도 했던 지난 20년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201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후원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증액에 참여해 주신 분

고유민, 곽정란, 김경란, 김동진, 김석진, 김선영, 김옥영, 김우영, 김준영, 김지숙, 김현우, 리치스톤, 박두용, 배재현, 송경민, 안정식, 오문택, 오형윤, 유승주, 이상복, 이일양, 이진섭, 정계현, 지선경, 천정배, 최병희, 한기백, 한서정, 한준구, 허설, 허원중, 현지연, 홍진표

새롭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후원에 참여해 주신 분

강민서, 강아영, 강정숙, 고성민, 기중서, 길국진, 김대석, 김미진, 김우철, 김기협, 김동수, 김민수, 김병업, 김보근, 김상평, 김선진, 김성경, 김소연, 김수목, 김승, 김용철, 김윤희, 김인숙, 김진하, 김현재, 나원주, 남영호, 민경태, 박갑수, 박건용, 박근병, 박상설, 박상준, 박성환, 박수현, 박완수, 박영숙, 박왕규1, 박왕규2, 박원기, 박정원, 박종필, 방양수, 백도인, 배병호, 서지현, 손관수, 손서홍, 손유미, 송승일, 송영훈, 송재원, 신상선, 안봉호, 양민우, 양재석, 엄훈, 원불교군북교당, 원순자, 유강선, 유인선, 윤기중, 윤석준, 윤소윤, 윤여상, 윤충현, 이금희, 이동호, 이로운, 이세우, 이성희, 이수경, 이승교, 이승락, 이승은, 이시우, 이신재, 이암스님, 이영은, 이원복, 이정익, 이정희, 이준모, 이진희1, 이태훈, 이해숙, 이혁희, 이호석, 이호진, 임영순, 장대건, 장영자, 장유금, 정윤섭, 정은이, 정재환, 정현숙, 조문숙, 조선희, 차선희, 천미혜, 최광모, 최상우, 최상현, 최성진, 최아름, 최영, 최유호, 최윤정, 최정국, 탁용달, 한승호, 한정우, 홍갑표, 홍기영, 홍대의 (주)뉴스토마토, (주)메디센서, (주)산과들농수산, (주)에스엠파워텍, 세형자원, 성림자원, 신한자원

캠페인 기간 일시 후원해 주신 분

고성민, 구태희, 김명신, 이철주, 정태호, 허설, Dan Gudgeon

남북의 '마음'은 통할 수 있을까?

마음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분단된 마음을 해체하는 것은 '분단'이라는 특정한 정치 체제 극복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온 한반도의 모든 이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단된 마음을 극복하려는 것은 그 어떤 논의보다도 더 급진적인 시도이며 동시에 분단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김성경 교수_북한대학원대학교

편집자주

1945년 이후 70여년 이상 남북을 갈라놓은 '분단'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고 있나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마음'이라는 주제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그 사회를 연구하는 김성경 교수의 글을 소개합니다. 한반도 분단의 해결은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 통하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침 내년 2018년은 남과 북이 각기 '단독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마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는 힘.” 우연히 본 광고 영상의 카피 문구다. 캠페인을 겸한 이 광고에 등장하는 어린 아이는 좋아하는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밥도 잘 먹고, 책도 열심히 읽는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며 대견스러워한다. 같은 캠페인에 등장한 또 다른 에피소드는 좋은 곳, 맛있는 음식, 근사한 물건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을 보여주며, “마음, 인간이 가진 가장 따뜻한 힘”이라는 카피 문구를 넣는다. 이 광고는 “마음”이라는 것이 신기하고 부럽기만 한 로봇의 모습을 오버랩하면서,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무한한 힘으로 마음을 정의하고 있다. 과연 ‘마음’은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라는 말인가?

사실 오랫동안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하지만 명확한 실체로 설명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존재 자체, 그 힘을 부정할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있다(없다)’, ‘마음이

좋다’, ‘마음이 통한다’, ‘마음이 따뜻하다’ 등등의 표현이 설 명해주 듯 ‘마음’은 굳이 정의내리거나 찾으려 하지 않아도 이 사회내 참여자라면 누구든 그 의미와 작동을 이해하고 있다. 그만큼 ‘마음’은 인류 역사 속에서 통용되어 온 것이며,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해 혹은 교환 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끈끈한 유대를 구축하게 한다. 그만큼 누군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공통의 ‘마음’ 혹은 ‘마음’의 긴밀한 연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분단 해소를 위해 독하게 마음 먹기”

오랫동안 서구 철학의 근간이 되어온 이성 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만을 주목하면서 그 밖에 존재하는 감정, 감성, (몸)감각, 정동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이성 “밖”에 존재해 한동안 담론의 영역에서 비가시화 된 힘들을 복원하려는 사회과학계의 시도는 이성에 기반



을 둔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작동에 좀 더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이다. 특히 '마음'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비이성을 주목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성과 비이성 그리고 의식과 신체의 경계를 넘어 이 둘의 상호작용과 변증법적 작동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김홍중의 개념화를 빌려오면 '마음'은 이성, 감정, 의지, 감각 등의 총체로서, 행위를 만들어내는 힘이며 각 사회의 구성원이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실체이다. 뿐만 아니라 '마음'은 개별화된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타자와의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 작동이 가시화된다. '마음'의 어원인 몸이 마주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해봤을 때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구성되는 총체가 바로 '마음'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여기'에서 포착되는 '마음'은 무엇일까. 과거 민주화시기에 한국사회가 공유했던 "진정성의 마음"이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를 거쳐 "생존주의의 마음"으로 변화했다는 김홍중의 주장은 일견 한국사회의 한 모습을 적확하게 분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민주화-산업화-신자유주의라는 맥락은 한국사회의 모습을 다소 '남한'의 맥락에만 한정해서 분석했다는 비판도 가능해보인다. 사실 식민과 전쟁, 그리고 냉전을 거치면서 '남한'은 단 한순간도 '북한'이라는 타자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해본 적이 없다. 백

낙청의 '분단체제론'을 굳이 차용하지 않더라도, '남한'사회와 이곳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은 '분단'이라는 맥락과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 분단으로 나뉘어져 버린 가족들, 서로간의 체제 경쟁으로 탄생된 남북의 독재정권들, 상대방을 의식하며 발전주의에만 골몰했던 남한과 경제와 정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에만 힘을 기울이는 북한 체제 등 사실 '분단'은 남과 북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일상에 깊이 자리한다. 또한 분단은 단순히 사회 구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만큼 분단이 체화된 몸과 마음은 서로를 적대하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더 나은 사회나 평화와 자유 등과 같은 인류 이상의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분단된 마음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절름발이로 만들었고, 이런 맥락에서 분단된 마음을 해체하는 것은 단순히 '분단'이라는 특정한 정치 체제 극복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온 한반도의 모든 이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단된 마음을 극복하려는 것은 지금껏 분단을 문제시한 그 어떤 논의보다도 더 급진적인 시도이며 동시에 분단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한편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한마음통합센터에서는 남과 북, 즉 분단 상황에서의 "마음"을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껏 정치나 경제 중심의 남북관계 혹은 통일담론의 프레임을 "마음적 전환(mindful turn)"을 통해 그 지평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마음적 전환"은 '마음'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의 북한 혹은 분단 관련 담론에 균열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이며, '마음'을 경유하여 한반도 분단에 새롭게 접근하려는 기획이다. 특히 연구단은 남과 북이 구축한 서로에 대한 마음의 면면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면서, 배제와 혐오를 배제한 분단의 마음을 '공감', '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있다.

예컨대 남과 북은 해방공간 시기를 즈음하여 이념과 체제 경쟁을 본격화하였고, 이후 전쟁과 분단을 겪게 되면서 서로

의 반대 항으로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한반도의 남쪽에서 맹위를 떨친 반공주의는 북한이라는 타자를 설정하여 구축된 것이며, 이는 정보사회가 도래한 최근까지도 중복이라는 가장 강력한 낙인 담론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북한 또한 반제국주의라는 기치아래 남한을 제국주의에 굴복한 체제로 폄하하며 한반도의 정통성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주민들을 호도하기도 한다. 다소 거칠게 정리해보면 어찌하면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함으로써 각자의 체제를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70년이 넘게 계속되어 온 이러한 분단 구조 내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용인하며 궁극적으로는 연대할 수 있는 관계를 구성하기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시작으로 간헐적이지만,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어온 남북교류는 남북의 적대적 마음에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갑작스레 마주한 남과 북은 상상해온 것과 다소 다른 모습에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소리 높이며 논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던 것이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일방적인 실천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봤을 때, 북한을 대상으로 한 남한 측의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 단순히 북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남한 사회의 인식과 마음을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은 또 어떠한가. 경제적 의미에서의 손익계산을 넘어서 북한주민과 남한기업인이 직접적으로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었으며, 동시에 서로를 안쓰러워하는 중요한 장이었음에 분명하다. 어찌하면 개성공단의 진정한 가치는 남북의 민간인이 서로 '접촉'했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감정이입'을 했으며, 이를 통해 '공감'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들은 개성공단의 폐쇄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조치로 실행되고 있는 대북제재의 파고에서 물거품이 되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하

는 것은커녕 서로 만날 수조차 없는 현 상황에서 분단된 마음은 더욱더 강화될 위험마저 높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면서, 북한을 향한 남한 주민들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버린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혁명 이후 한국사회에 가득 찬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에서 '북한'과의 화해나 협력의 자리를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단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연민이나 결핍이라는 감각이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대부분의 남한주민은 단순히 인류애적 안타까움과는 약간은 결이 다른 마음 아픔과 애처로움, 더 나아가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했다는 자책과 부채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서로를 적대해왔지만, 간간이 계속되어 온 교류와 역사 교육 그리고 민족의 감성 등으로 인해 단순히 북한을 적대할 수만은 없다는 미세한 균열이 분단된 마음에도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듯 '불편한 마음'은 그만큼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금 남과 북이 서로를 마주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금 남북이 만나서, 서로 마주하며, 싸우고 화해하며 관계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마주함으로 만들어지는 또 다른 균열이 분단된 마음에 틈새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이토록 적절하게 느껴졌던 해가 있었던가. 대통령 탄핵으로 과거 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했고, 촛불혁명이라는 새로운 힘으로 남한이 온통 들쭉거렸으며, 새로운 미래라는 희망을 감히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한 해였다. 이제 우리가 꿈꾸는 미래, 그리고 우리가 바쁘게 준비해야 하는 2018년에는 적어도 남북 사이의 적대적 마음을 다시금 성찰해볼 수 있는 작은 기회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안 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특히 우리가 "독하게" 마음을 먹는다면 말이다.

긴 시각에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바라보아야

제67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북한 6차 핵실험과 남북관계 - 우리의 돌파구는?’ 개최

북한과 평화적 소통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준비된 67회 평화나눔 정책포럼이 관심 있는 이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보수적인 여론을 끌어올리더라도 긴 호흡을 가지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의미를 얻었다.

양두리 간사_정책팀

긴 호흡을 가지고 북핵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2003년 시작되어 어느덧 67회째를 맞이한 이번 정책포럼은 2017년 9월 18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회의실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가 사회를 보았고, ‘북한 6차 핵실험과 남북관계 - 우리의 돌파구는?’이라는 주제 아래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의 김연철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김연철 교수는 9월 3일 단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국제 정세에 대해 끼칠 영향과 향후 대처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강한 제재 압박만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북한도 최대 억지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2010년을 기점으로 방어적인 성격에서 공격적인 성격을 바꾼 한미군사훈련의 내용과 규모를 통상적인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북한에 대한 보수적인 여론이 높더라도, 남북 갈등이 지속된다면 결국 국민은 화살을 돌려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는 한국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긴 호흡을 가지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대중과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인 ‘평화나눔 정책포럼’은 2018년에도 이어집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회차	주제	발표자	
66회	2017. 7. 18 (화)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관계 개선 모색	이해정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광주	2017. 7. 27(목)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분석과 한반도 평화방안 모색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67회	2017. 9. 18 (월)	북한 6차 핵실험과 남북관계 - 우리의 돌파구는?	김연철 교수 (인제대학교)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대체’가 아닌 ‘보완’이 되어야”

정책토론회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지원 방향 모색’ 개최

2017년 10월 31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지원 방향 모색’이라는 제목 아래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80여명의 대북지원단체 활동가, 연구자 등 남북관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양두리 간사_정책팀

남북이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발제를 맡은 임형준 WFP 한국사무소 소장과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은 각자 몸담고 있는 WFP와 우리민족을 포함한 한국NGO의 향후 대북사업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은 월드뱅크에서의 오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의 여러 양상, 그로 인한 실익과 비용을 짚으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조정훈 소장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현재 대북지원에 있어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이는 남북양자간 사업의 ‘대체’가 아닌 ‘보완’일 때 효과적일 수 있다며,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한국 NGO 간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구상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명의 발제에 이어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운식 겨례의숲 사무처장, 최현아 한스사이텔재단 수석연구원이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신영전 교수와 윤지현 교수는 대북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고, 이운식 처장과 최현아 연구원은 한국 NGO와



국제NGO로서 사업추진시의 애로사항에 대해 말했습니다. 특히, 신영전 교수는 국제사회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남북이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우리도 단순히 기금사업을 ‘집행’만 하는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토론회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지원 방향 모색’ 프로그램

- ▶ **사회:** 고경빈 공동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 **발제**
 1.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 및 WFP지원사업 현황
- 임형준 소장 (WFP 한국사무소장)
 2. 향후 한국 NGO의 대북지원 방향 모색
- 홍상영 사무국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3.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지원 방안 모색
- 조정훈 소장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 ▶ **토론**
 - 신영전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윤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이운식 사무처장 (겨례의숲)
 - 최현아 수석연구원 (한스사이텔재단 한국사무소)

평화축구교실, 학교와 협력하여 진행된다

금번 어린이평화축구교실이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학교 안으로의 진입은 평화축구 프로그램 확산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양두리간사_정책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으로 진행

지난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서울 영신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9기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33명의 초등학교 3~5학년 학생이 참가한 이번 수업에는 덴 거즌 헤드코치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코치진은 물론, 올 여름 '2017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트레이닝'에서 1~2급 코치 자격증을 취득한 4명의 코치들이 함께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9기 수업은 이제까지의 수업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이 홍보를 통해 아이들을 모아 수업을 진행했던 지난 8번의 수업과는 달리, 이번에는 초등학교의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초등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공교육 현장으로 들어갔던 이번 수업은 코치로서도, 실무자로서도 공교육 체계와의 협력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공교육 시스템은 어린이 교육에 있어 가장 좋은 행정, 홍보,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으로의 진입은 향후 '평화축구'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9기 참가아이들 대상 설문

Q1 평화축구교실은 재미있었는지



Q2 평화축구교실을 통해 달라진 점

축구에 재미를 느끼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음	10명
자신감이 생기고 더 활발해짐	3명
경쟁만이 아닌 양보, 존중, 믿음이 있는 스포츠도 있다는 걸 알게 됨	4명
평화가치를 더 이해하게 됨	1명
잘 모르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게 됨	1명

*복수응답자 있음

밀산시 '네모상자'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꿈꿀 수 있기를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꿈을 키웠던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에 있는 밀산시조선속학교에 17번째 '네모상자' 도서관이 활짝 문을 열었다.

이영재 부장_지원사업팀

중국 조선족학교의 책읽기와 독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네모상자' 도서관이 또 반가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밀산시조선족소학교에서 17번째 '네모상자' 도서관이 개관을 맞았습니다. 밀산시는 중국 흑룡강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러시아 국경을, 남쪽으로는 목단강시와 접하고 있는 변방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100여년의 정착 역사를 갖고 있는 밀산의 동포들은 벼농사와 장사를 하면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으며, 특히 일제강점기 북로군정서 서일 총재, 봉오동전투의 홍범도, 서천서숙의 이상설 선생 등이 이곳 밀산에서 독립의 꿈을 키웠습니다.



아이들로 꽉 차는 도서관

밀산시조선족소학교는 1947년 개교한 후 70년이 지난 지금 유치원 3개 학급 60여명, 소학교 6년 과정 180여명과 교사들이 함께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는 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 가을부터 진행된 협의는 공간조건과 학교측의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계, 자문, 시공의 절차를 거쳐 지난 2017년 10월 23일 도서관의 문을 화려하게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도서관의 서가를 채울 수 있는 한글도서 2,500여권도 함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관식 행사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일영, 이용선, 황언구 대표님이, 그리고 특별히 다방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김영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련옥 교장을 비롯한 학교 선생님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아이들의 언어 및 학습실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도서관 운영교육 연수에 해마다 선생님들을 보내 열심히 배우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곳 학생들이 '네모상자'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기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같이 꿈을 꾸겠습니다.



“옛날 도서관은 교실도 작고 조선말책도 적어서 아이들이 책읽기를 좋아하지 않고 독서시간에도 그냥 장난치고... 새 도서관을 사용하면서 친구들이 저마다 좋아서 오후 시간만 끝나면 도서관에 꼭차 남칩니다. 몇몇 애들도 오는 새는 도서관으로 뺄질나게 드나들면서 책본 이야기를 친구들과 속삭이고 있습니다.”

-소학교 3년 김지현-

사서교사의 작은 보람

전태옥 교사_ 흑룡강성 상지시조선족중학교

편집자 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중국 조선족학교에 세우고 있는 '네모상자 도서관'은 그 속에서 일하는 선생님에게도 큰 보람을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설치된 '네모상자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중국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글을 실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로 배치 받은지 어언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한국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새롭게 꾸며진 학교 도서관은 아늑한 방이기도 하다. 우리가 아는 도서관은 발자국소리를 내기도 미안한 책을 읽는 학생들의 숨소리만 고르게 들리는 곳이다. 이런 도서관의 독서분위기를 떠올린다면 어리둥절해질 것이다. 우리 도서실에선 아이들이 누워서 책을 읽기도 하고 옆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책을 보기도 한다. 하지만 큰소리는 금물! 또 아이들은 책 한 권을 친구들과 함께 보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도 할 수 있다.

작년 여름 한국 학교 도서관연수활동캠프에 참가했다. 도서관캠프에서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또 한국도서관의 고마운 분들께서 보내주는 책들로 나의 독서지도는 하루하루 더 풍성해졌다. 하지만 매일 업그레이드되는 독서과는 더러 곤혹스러운 일도 있었다.

초중1학년의 김미봉 학생은 반급에서도 이름난 말썹꾸러기였다. 독서시간에 책 읽기를 할라치면 앉아 꺾을 질경질경 썩거나 옆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몇 번이나 조치를 취해보아도 효과가 없었다. 매번 반복되는 골칫거리 봉이 학생을 어떻게 다뤄 볼까하고 고민도 많이 해보았다.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라고 하니 기진맥진해 진 것 같았다. 그날도 옆드려있는 봉이 한테로 다가갔다. 나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 하나를 골라잡아 봉이에게 건넸다. 킁킁 좋아하는 기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쾌히 받아들였다. 이윽하여 그림책에 신나는 총쏘기 장면이 나오자 피씩 웃음이 어린 얼굴로 할끔 나를 쳐다보았다. 나도 긍정적인 눈길을 주면서 웃었다. 그리고는 메모지에 <<선생님은 봉이 학생을 믿어요. 화이팅!>>하고 살짝 책상모퉁이에 얹어놓았다. 그랬더니 요즘은 제법 도서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잦아졌다. <<아,이젠 됐구나, 포기하지 말아야지.>> 알록달록한 사탕도 준비해놓았다.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봉이에게 다가가 슬쩍 호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그랬더니 다음 날은 시간이 되기도 전에 찾아왔다. 난 봉이에게 배워야 하는 도리와 독서의 참뜻에 대해 깨우쳐 주었다. 초롱초



롱한 눈빛으로 듣고 있는 봉이가 웬지 성숙해 보였다. 조금은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다. 동심을 어루만져주는 마음이 비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 풍부한 경험, 나와 타인, 나아가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고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었다. 고중1학년 독서시간 이었다. 세영이가 "사서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왔다. 세영이가 쓴 글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한없이 기뻐고 그 동안의 보람이 느껴졌다. 또한 아이들과의 소통에서 끌어주고 받쳐주는 지레대가 얼마나 큰 미래지향적 영향을 남겨 줌을 터득했고 아이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에 반짝이는 눈빛에서 튀기는 스틸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독서법에 대해 설명하고 글을

좀 더 정성껏 읽을 수 있도록 하며 좋은 문장의 표현법을 익히기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갈고닦는 수양의 시간도 독서로 갖게 하였다. 글을 읽고 머리속에 집어넣는 것을 지식 충전의 기본으로 성장시키고 '독서와 배움', '자기관리와 노력', '꿈과 희망' 등을 주제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목표와 열정을 부각시켜 주었다. '좋은 글귀를 읽고 즐거움을 먼저 누리보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해보세요' 등으로 책 읽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짧은 메모를 적어 책상 위에 살포시 올려도 놓았다. 메모훈련은 나의 기본수단이 된 건가? 킁킁 혼자 웃어도 보였다. 감사 한 것은 그 어려운 첫걸음을 떼기 힘들어 하던 아이들도 점차 책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었고 책과 걸음을 함께 할 누군가가 있다는 감동을 느끼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독서는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쉽게 무시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희망과 사랑을 주어야 한다. 독서 풍으로 아이들과 동반성장하고 맛풍, 멋풍보다도 새로운 독서 풍으로 주위를 꾸려나가야 한다. 아이들에게 더 넓고 깊은 것을 멀리 볼 줄 아는 시야를 키워 주련다. 매일 성장하는 내 아이들의 그릇을 점검하고 더 크게 넓게 만들어보련다. 새로운 도전과 사랑의 에너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양분을 수혈 하련다. 우리 모두가 도서관을 사랑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내 가정을 꾸리듯 작은 도서관을 채우고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도서관의 이용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열어간다면 더 빛나고 포근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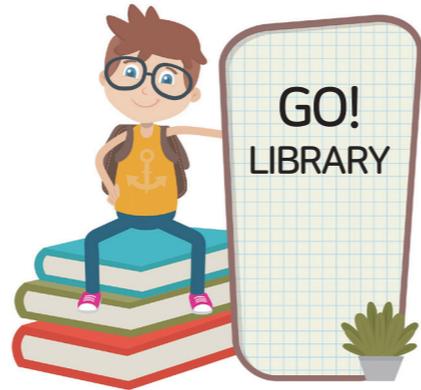
* 위 글은 중국 흑룡강성 조선어잡지인 '송화강' 126호에 발표되었습니다.



학교도서관 뛰어넘기

한글도서관도 부족하고 학교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여전히 서툰 중국교육의 현실에서 동북3성 조선족학교 도서관 운영교육 연수는 도서관 담당 교사들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영재 부장_지원사업팀



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조선족소학교, 중학교에서 동북3성 조선족 학교 도서관 운영교육 연수가 열렸습니다. 이 학교도서관 운영교육 연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중국 조선족학교에 진행하고 있는 '네모상자' 도서관 지원, 한글도서 전달 등과 함께 조선족학교 도서관이 보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우는 것을 돕는 활동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를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강사진으로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에서 김경숙, 박영옥, 문원림, 김동현 선생님이, 경기센터 주정숙 국장님이 참가를 하였고, 연변화동정보교류유한회사에서 주최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활용 방법 배우기

14일 첫날은 상지시, 상지중의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인식개선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17일까지는 동북3성 33개 학교, 58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체 도서관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연수 기간 '책! 즐겁게 만나기', '주제별 깊게읽기', '독서동아리 조직하기'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활용 방법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의 연수를 통해 배우고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남용석, 안태련, 배명순 등 세 분의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는 각각의 학교에서 도서관을 어떻게 아이들과 책이 친해지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다양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 강의는 중국의 교육체계 속에서 다른 학교 교사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 중국 조선족학교는 한글도서관도 부족하고, 또 학교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여전히 서툰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이 교사와 학생을, 학교와 학부모를, 선배와 후배를, 책과 수업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열정과 끈기가 가득한 연수 참가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기존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체험하는 다양한 공간, 평화로 2017

이영재 부장_지원사업팀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위해

통일부 주최 '평화로 2017' 행사가 서울로 7017,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2017년 10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3일간 열렸습니다. 국민들이 평화와 통일을 체험해보며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56개 대북지원 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부회장 단체이자 정책위원장 단체를 맡고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분야의 경험과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자는 취지에서 5동의 홍보부스를 꾸려 참여를 하였습니다.

북민협이 꾸린 부스는 북한 입국체험이라는 컨셉으로 평양에 입국할때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 작성을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었고, 평양 순안공항을 배경으로 하는 포토월 설

치, 북한커피 시음, 한반도 지도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북지원단체들의 북한에서의 남북협력의 기록을 담은 사진전시를 통해 과거 남북이 왕래하며 성과를 만들어냈던 기억들을 불러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30여개 이상의 단체들 60명 이상이 참여하여 3일간 1천여명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부스를 찾은 시민들이 주로 묻는 질문이 "이 사진 속 사업이 실제 북한에서 진행되거예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의 활동이 우리만의 활동이지는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광장에 서서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알리는 우리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형제. 하지만 연인, 친구, 가족을 희생하며 만들고자 했던 정의로운 세상은 아득하기만 하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은 묻는다. 서로 다른 이상과 이념으로 인한 대립 속에서 잃지 말아야 할,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강지현 간사 기획홍보팀



작품연도 : 2006년 / 감독 : 케노치

그녀를 향한 오래된 사랑
 나의 새로운 사람은 아일랜드를 생각하네
 산골짜기의 미풍이 금빛보리를 흔들 때
 분노에 찬 말들로 우리를 묶은 인연을 끊기는 힘들었지
 그러나 우리를 묶는 침략의 족쇄는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네
 그래서 난 말했지
 이른 새벽 내가 찾은 산골짜기
 그 곳으로 부드러운 미풍이 불어와
 황금빛 보리를 흔들어 놓았네

로버트 드 조이스(Robert D.Joyce)의 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 영화를 울린다. 식민지 아일랜드, 독립 투쟁. 그 후 이념 대립으로 분열되는 아일랜드 사람들. 식민통치에 저항하며 독립을 열망했던 한민족이 광복 후 전쟁으로 분단되며 대립을 반복하는 상황과 겹친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은 평범한 사람에서 투쟁적 운동가로 변해가는 이들의 삶을 그려낸다. 그리고 그 투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주인공 데미언은 의사가 되어 상류층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일상 속 유린당하는 가족과 친구를 보며, IRA의 리더인 형 테디를 따라 IRA에 가입한다.

“조국이라는 게 어떻게까지 할 가치가 있는 거겠죠”

IRA 조직을 영국에 밀고한 이들을 처형하며 데미언은 울조린다. 밀고자는 영국에 기생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부유한 상인과 그의 하인 크리스다. 크리스는 데미언과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아온 친동생 같은 소년이다. 데미언은 독립운동 조직 IRA를 지켜내기 위해 크리스를 쏘면서 이를 악문다. 데미언은 독립한 조국이 정의롭고 가치 있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것은 투쟁으로 만들어보려 했던 정의로운 세상이 아닌 또다른 고민과 갈등이다.



밀고자를 처형하기 위해 산을 오르는 IRA와 크리스를 쏘는 데미언.



IRA의 투쟁으로 영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아일랜드 자유국이 성립하지만, 그 협정은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자치령으로, 북아일랜드는 영연방 아래 두는 불완전한 협정이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IRA 조직은 분열한다.

완전한 독립파인 데미언과 현실 타협파인 형 테디는 갈라서게 된다. 결국 완전한 독립파는 아일랜드 자유국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결정하고, 형 테디와 동생 데미언은 적으로 갈라선다. 결국 자유국 군인인 테디는 저항군 조직의 실체를 밝히지 않는 동생 데미언의 사형을 직접 집행한다.

'보리밭에 부는 바람'은 갈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담담하게 우리의 마음 한쪽에 잠든 부조리에 대한 감성을 일깨운다. 이념을 위해 또는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 시키며, 그들은 다짐하지만, 또 다른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반도에 절실한 것은 '평화의 과정'

오늘날 한반도는 어떠한가? 북미간 대립을 거듭하며 도발과 제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평화의 관점이다. 오래묵고 강고한 갈등과 분단 체제를 통째로 뒤엎어 체제 통합으로서의 통일을 주장하기보다, 평화와 공존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절실하다. 통일은 과정이다. 그 과정을 여는 것이 인도주의다.

북한에는 분명한 인도주의적 요구가 있고, 그 요구는 정치적 교착 상황을 넘어서야만 한다. 정치적으로 유화적인 상황이 인도주의의 전제가 아니라, 인도주의가 평화의 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예한 정치적, 이념적 순결성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체제를 만들어 가려는 마음.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에 대한 뜨거운 연민의 마음일지도 모른다.



동생 데미언의 사형을 직접 집행한 후 오열하는 테디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9월

- 9일 '제4회네모상자를 품다' 행사 개최
- 15일 중국 길림성 도문소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준공식
- 18일 제67차 정책포럼
 - 주제: <긴급진단>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남북관계
 - 기조발표: 김연철 교수 (인제대학교)

10월

- 14일 2017년 '러시아 불고그라드 고려인문화축제'
- 14일~28일 9기어린이 평화축구교실
- 23일 DMZ 평화투어 (강화도·교동도 일대)
 - 중국 흑룡강성 밀산소학교 도서관 개관식
- 31일 평화나눔센터 정책세미나
 - 주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향후 대북 인도지원의 방향
 - 기조발제:
 -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 및 WFP 지원사업 현황 (임형준 WFP한국사무소장)
 - 향후 한국 NGO의 대북 인도지원 방향 모색 (홍상영 사무국장)
 -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지원 발전 방안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장)
 - 토론:
 -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윤지현 (서울대 교수), 이운식 (겨레의숲 사무처장), 최현아 (한스아이텔재단 수석연구원)

11월

- 3일~4일 평화활동가대회
- 7일 제83차공동대표회의
 - 나기사픽(Nagi Shafik) 박사 초청간담회
- 13일~18일 중국 사서교사 현지 연수
- 14일 11월 고등학교 현 교과서 수거

12월

- 9일 BaB 캠페인 물자지원
- 26일~29일 중학교 현 교과서 수거



우리민족 단신소식

NEWS

강영식 사무총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01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민간통일운동을 통해 평화통일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7년 11월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습니다. 정부가 매년 국민의 통일외식 제고와 민간부문의 통일운동 활성화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민간통일 유공 포상입니다. 강영식 사무총장은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 멤버로 지난 20년을 북한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교류활성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책소개

“평화의 시선으로 분단을 보다”- 남북관계사 20장면

02



저자 정영철·정창현
유니스토리 (2017.11.30)

북한 역사와 남북관계를 꾸준히 연구해 온 정영철 교수와 정창현 교수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집필한 남북관계사 교양서이다. 분단의 형성과 남북갈등, 대화와 교류 등 분단 70년사에서 남북관계의 결정적 장면을 연출한 20개의 사건을 뽑아 흥미롭게 서술하였다. 특히 분단, 38선의 탄생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베라'를 둘러싼 논쟁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의 평화통일의 꿈까지 총 20개의 장면을 통해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다시는 전쟁과 적대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며, 화해와 협력, 신뢰와 공동 번영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평화'의 시선으로 남북관계를 재조명하였다.

